

##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

이 정 빈†

정빈심리상담연구소

이 연구는 한부모 여성들이 부모역할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용되었으며, 그 절차에 따라 경험의 본질에 집중, 경험한 그대로의 탐구,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및 글쓰기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부모의 보호를 요하는 자녀와 함께 살면서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 한부모 여성들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6월~2011년 12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담과 관찰법을 사용하였으며, 심층면담 방법은 비구조화 방식을 선택하였다. 주제 도출은 필사한 텍스트를 여러 번 읽으면서 참여자의 의미 있는 반응이나 느낌에 초점을 두고 관용어구와 문학작품과 현상학적 문헌을 참조하면서 분류와 사유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6개의 하위 주제와 6개의 본질적인 주제가 도출되었다. 참여자의 본질적인 주제는 <내 삶이 산산조각 남>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속상함> <한부모로서 삶을 재구성해나감> <어긋남과 방어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기> <홀로 해야 하는 힘겨움> <한부모로서 삶이 영글어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주제는 양부모 가정 어머니에서 한부모가정 어머니가 되면서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구조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한부모가정, 한부모 여성, 부모역할, 질적연구, 현상학

\* 이 연구는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이정빈, 정빈심리상담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8-3 삼양연립 나동 203호  
Tel : 010-5844-5789, E-mail : solhyang37@hanmail.net

## 들어가는 말

한부모가정은 일반적으로 이혼, 사별, 별거, 미혼모 등으로 발생한다. 과거에는 한부모가정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사고사, 이혼, 미혼모의 증가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부모가구는 2012년 7월 현재 전체가구의 9.3%인 1,639천 가구에 이른다.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05년 8.6%에서 10년 9.2%, 11년은 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2). 한부모가구의 발생 원인은 사별이 29.7%, 이혼 32.8%, 미혼 부·모가 11.6%로 사별 외에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통계청, 2012)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합의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모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한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와 그 부모의 보호를 요하는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한다(공선영, 2000; 박정운, 2007; 배미영, 2009; 황은숙, 2001; 최명선 외, 2007). 한부모 여성이란 보호를 요하는 자녀와 어머니만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국내연구는 2000년대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양부모가정과 비교하여 한부모가정에 대한 결손의 시각 또는 잠재적 문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1997년 ‘편부모’에서 ‘한부모’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한부모 여성의 심리·복지 쪽으로 연구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는 양부모가정이 이상적이라는 시각으로는 한부모가정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최명선 외, 2007). 이러한 맥락에서 한부모 여성의 심리적 안녕이나 홀로서기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 여성의 심리적 안녕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김상희, 2004; 문현숙, 1999; 양한연, 2009; 장혜경, 2002; 최명선 외, 2007; 황선희, 2010; 황은숙, 2005)는 모두 한부모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상희(2004)와 황선희(2010)는 사별을 경험한 여성의 심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문현숙(1999)은 이혼 후 관계문제, 이혼 후 전략, 상담실 이용 등 싱글맘의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황은숙(2005)은 이혼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밝혔다. 또한 양한연(2009)은 싱글맘의 자조모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종전에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를 동시에 아우르는 한부모의 양육태도나 의사소통 방식 등에서 벗어나 한부모 여성들이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이해하려는 경험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장혜경(2002)은 이혼한 여성이 이혼과정과 이혼 후에 여성 스스로가 이혼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부모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밝혔다. 최명선 등(2007)도 한부모 여성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한부모 여성으로서 장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부모 여성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장혜경(2002)의 연구는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이

기는 하나 한부모 여성이 이혼 전과 이혼 후에 아이들에게 이혼을 어떻게 설명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과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최명선 등(2007)의 연구는 53명의 한부모 여성들을 대상으로 많은 변수를 고려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부모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깊이 이해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에는 한부모가 된 원인과 관계없이 한부모 여성의 자존감 회복이나 자조모임의 필요성, 힘 기르기, 부모교육 등에 대해 주목한 연구들(공선영, 2000; 양한연, 2009; 허정은, 2002; 황은숙, 2001)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한부모가 된 원인과 상관없이 ‘한부모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한부모 여성이 겪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 특히 젊은 나이에 한부모 어머니가 된 경우 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는 미흡하다. 젊은 나이에 사별을 경험한 여성은 노년기에 사별을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된다(김상희, 2004; 황선희, 2010). 이러한 고통은 이혼한 여성과 미혼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젊은 나이에 한부모가 된 경우 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므로

부모역할 수행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양한연, 2009). 따라서 젊은 나이에 한부모가 된 여성들이 부모역할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상담 및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방 법

### 현상학과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

현상학은 수 세기 동안 자연과학적 방법이 진리발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유방식에 대한 반성과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Husserl은 20세기 초에 자연과학의 실증주의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삶과 경험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의미와 가치는 양적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인문과학에 맞는 인식 및 존재원리를 해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상학을 제안하였다(이남인, 2003). Husserl은 인간의 의식은 항상 지향성(intention)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지향성이란 고의로 의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상학의 지향성 개념은 인간의 체험과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항상 무엇을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상학은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다양한 의식의 지향성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현상학적 자료 분석방법은 여러 학자들(Colaizzi, 1978; Giorgi, 1979; van Manen, 1990)

에 의해 제시되었다(조흥식 외 역, 2012). 그 중 van Manen의 방법은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주시하게 함으로써 이전에 반성되지 않았던 ‘당연하게 여겨지던 현상’에 대해 보다 풍부한 의미를 드러나게 한다(van Manen, 1997). van Manen이 제시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특징은 다양한 예술적 원천을 활용하며,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술보다는 해석을 중요시하며, 연구 참여자의 통찰력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글쓰기 과정’을 매우 중요시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van Manen의 연구방법에 따라 살아있는 경험의 본질에 집중, 경험한 그대로의 탐구,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의 4단계로 이루어졌다.

#### 문학과 예술작품에서 나타난 한부모 여성의 경험

van Manen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다양한 예술적 원천을 사용하여 참여자가 경험한 세계를 통찰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문학과 예술매체는 나름의 표현 언어를 갖고 있으므로 인간 경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van Manen, 1997). 이 연구에서 참고한 문학과 예술작품은 수필 2편, 소설 1편, 시 5편, 그림 5편이다. 그러나 지면의 제한으로 한부모 여성 또는 어머니의 본질적 주제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시 1편과 그림 3편을 제시한다.

##### 시 부문

강형철의 시 <늙지 않는 절벽>은 자식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 늙지 않는 절벽

어떤 세월로도 어쩔 수 없는 나이가 있다  
늘 ‘내 새끼’를 끼고 다니거나  
그 새끼들이 물에 빠지거나 차에 치일까  
걱정만 몰고 다니는

그 새끼들이 오십이 넘고 육십이 되어도  
도무지 마음에 차지 않아  
눈썹 끝엔 이슬만 어롱대는

맛있는 음식물 앞이거나 좋은 풍광도  
입 밖의 차림새, 눈 밖의 풍경  
앞가슴에 손수건을 채워야 안심이 되는

어머니란 나이

.....

##### 그림 부문

그림 1은 인상파 화가 모리조의 <요람>으로 어머니의 시선으로 세계를 담아낸 작품이다. 요람은 외부로부터 아기를 보호해주는 장치로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보호 의지와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준다. 특히 잠든 아이의 온화한 얼굴과 대조를 이루는 어머니의 어두운 옷과 머리카락과 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림 2는 알브레히트 뒤러의 <어머니>다. 이 그림은 얼굴의 굵은 주름과 움푹 패인 볼과 상대적으로 튀어나온 광대뼈에서 어머니의 마음의 주름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준다.

그림 3은 오진국의 <홀어머니의 밤>이다. 오진국은 32살에 홀로 된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그린 것이라고 한다. 홀로 된 어머니가 세상살이 고민으로 밤새 잠 못 이루는 어머니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오진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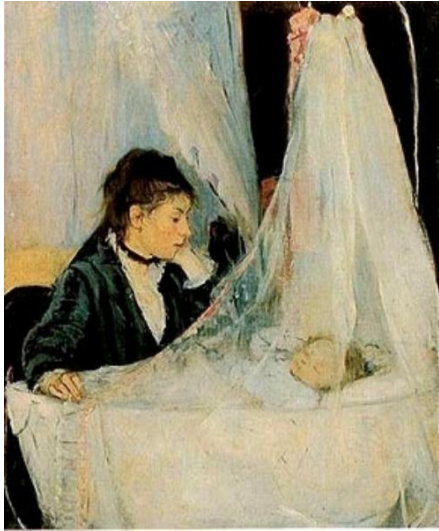


그림 1. 모리조의 요람



그림 2. 뒤러의 어머니



그림 3. 오진국의 홀어머니의 밤

디지털 아트, 2010).

### 연구 참여자의 선정

질적 연구의 표본추출을 위한 두 가지 원리는 적절성과 충분함이다. 적절성은 연구에서 이론적 필수 조건에 따라서 연구에 대해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

아내어 선택하는 것이고, 충분함이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집해야 함을 의미한다(신경림 역, 1997).

이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은 연구자의 지인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을 소개받거나 참여자들이 추천해 준 사람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표 1. 참여자 정보

사례	결혼 지속기간	한부모 된 이유	한부모 된 기간	자녀	직업	거주하는 곳	양육비 지원
1	4	이혼	6	딸 1	비정규직	친정	없음
2	3	사별	10	딸 1	비정규직	(친정→독립)	없음
3	10	사별	7	아들 2	비정규직	자가	없음
4	5	이혼	1	딸1 아들1	비정규직	월세	없음
5	5	사별	12	아들 2	공무원	자가	보상금
6	...	미혼모	11	딸1	비정규직	친정	없음
7	7	이혼	13	딸1	계약직	자가	없음
8	2	이혼	6	아들1	계약직	친정→독립	월 30만원

들은 모두 한부모 여성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한부모 된 기간은 6~13년이며, 자녀의 연령대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이다.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담과 관찰법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 방법은 비구조화 방식을 선택하였다. 1차 면담에는 연구목적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여성 한부모로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로 시작했다. 면담 도중 참여자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또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되물어 참여자의 경험을 말하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자의 선입견을 유보하고 참여자들의 경험에 집중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면담시간은 1차 면담은 70분에서 100분 정

도 소요되었고, 2차 면담은 50에서 70분 정도였다. 2차 면담은 1차 면담에서 참여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여 듣거나, 연구자가 1차에 면담한 내용을 듣고 ‘중요한 주제’라고 판단되는 것을 메모하고, 그것에 대해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 실시하였다. 면담 횟수는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2회 이상 면담하였고,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 차원에서 필사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고, 면담 후에는 현장기록 노트에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특징, 면담의 주요 내용과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면담장소는 조용한 찻집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에게 약간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 질적 연구의 타당화 과정

질적 연구는 철학적 배경, 방법적 배경, 연구 목적 등에서 양적 연구와 구별되기 때문

에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양적 연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Lincoln & Guba(1985: 양진향, 2001, 재인용)의 엄밀성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연구자는 사실적 가치를 위해 면담자료를 분석한 후 가장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되는 참여자 두 명에게 연구결과를 보여 주고, 연구자가 참여자의 경험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자신들의 경험을 잘 이해하고 표현해줬다는 피드백을 들었다.

적용성은 양적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담 자료가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포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7 번째 참여자부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8번째 참여자도 확인해 본 결과 더 이상 새로운 자료는 없었다. 따라서 적용성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일관성은 자료수집에서 분석과정까지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관성은 양적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소지자에게 연구결과를 평가받았고, 주제범주화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중립성 측면에서 연구자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참여자의 입장에서 참여자의 눈으로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한 명에게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 연구결과

###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은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 드러내는 단계다.

연구자는 본질적인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필사된 내용과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원자료의 내용과 비교하였으며, 불명확한 부분은 전화 또는 메일로 참여자에게 확인하였고, 현장 노트를 참고하면서 면담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런 다음 필사된 내용을 반복하여 읽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문장 혹은 문장다발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부모 여성의 경험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전체자료에서 찾아내어 텍스트 분리작업을 하였다.

다음으로 분리된 텍스트를 참여자의 반응이나 느낌에 초점을 두고 주제 진술을 분리시켰고, 참여자들로부터 84개의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의 주제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었다. 이 주제들 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을 묶어서 26개의 주제로 통합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주제와 의미가 상호 동질적이라고 판단되는 주제들을 묶었으며, 각 주제들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인 6개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질적 주제는 하위의 주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본질적 주제들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여러 번 자료로 돌아가서 사유하고 고치며 어원과 관용어구와 문학 및 예술작품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6개의 본질적인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의 본질적 주제

주제	본질적 주제
1) 믿기지 않은 현실 2) 회한이 사무침 3) 아물 수 없는 상처 4) 내가 그르친 것 같음	1. 내 삶이 산산조각 남
1) 홀로 해야 하는 서러움과 두려움 2) 경제적 책임을 다 못할 거 같은 두려움 3) 힘든 삶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짐 4) 대신할 수 없는 아빠의 빈자리 5) 더 잘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2.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속상함
1) 아빠 뭉까지 다해 잘 키우려고 애씀 2)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애씀 3) 낙인과 불이익으로부터 나를 지킴 4) 앞날을 잘 대비하도록 채근함 5) 보답해주리라 믿으며, 아이를 최우선으로 살아감	3. 한부모로 삶을 재구성해나감
1) 저절로 기가 죽음 2) 피붙이에게도 마음이 닫힘 3) 고마우면서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친정 4) 편견과 마주 해야 함 5) 양부모가족과 어울림이 불편함 6) 숨겨야 할 비밀	4. 어긋남과 방어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기
1) 묵여 있는 느낌 2) 심신이 지쳐감 3) 외로움	5. 홀로 해야 하는 힘겨움
1) 아이가 잘 키워서 위안이 됨 2) 한부모로 안정되어 감 3) 힘겨움 속에 내 발전한 기쁨도 있음	6. 한부모로서 삶이 영글어감

내 삶이 산산조각 남

참여자들은 행복한 앞날을 기대하면서 가정을 꾸렸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부모가 되어야 하는 충격을 받게 된다. 참여자들은 그때의 경험을 “세상이 다 사라진”, “삶이 불타 없어진”, “삶이 산산조각 난” 등으

로 표현하였다. 삶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와 홀로 남겨진 참여자들은 그 기막힌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괴로워한다. 참여자들의 상처는 깊디깊어 이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아물지 않고 진물이 난다. 또



한 그들은 이런 슬픔을 꺾꺾 삼키며 지난날을  
반추하거나 회한에 잠긴다.

- 믿기지 않는 현실

내가 왜 이런 운명을 겪어야 하나 그게  
속상한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분열되고 타 없어지고 불모지로 변한 다  
타버린, 타버린 날아가 버린 아무것도 없  
는 불모지가 된 느낌,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없는 ... 한 김 빠지고 현실이 보이면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내가 왜 저 사람을  
피하지 못했나? 저 사람을 피해가지 못한  
운명의 진흙탕을 부정하고 싶어요, 현실  
인정하기 싫죠, 꿈이었으면 좋겠다, 멍해지  
고 멍멍하고 ...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  
어, (참여자 1)

미끼지 않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억울한 심정이  
생겨서 ... 이거는 내일이 아니야 거부하고  
싫고, 자고 일어나면 아널 거야, 제일 걱정  
되는 게 내가 앞으로 뭘 해서 먹고살지?  
... 기가 막히고 멍하고, 모든 게 마치 시  
간이 멈춰져 버린 듯한 막막함을 정말 오  
랫동안 품고 있었어요,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나쁜 짓하고 산 기억이 없  
는데 꿈일 거야, ... 왜 저들은 그대로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이 세상이 지금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참여자 3)

참여자들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배우자를  
상실하거나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큰 시련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순식간  
에 깨지고 사라져 버린 것 같은 현실에 망연

자실한다. 그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라  
고 표현한 것은 억울함과 강하게 거부하고 싶  
은 마음, 믿을 수 없는 마음이 담겨있다.

- 회한이 사무침

내가 결혼을, 배우자를 선택하기에 너무  
지혜도 그렇고 사람이 덜 컸었고 사람 보  
는 눈이 없었고 딱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00아빠는 결혼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고,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고 ... 내가 배우  
자를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되  
는 삶의 무게, 그렇게 한번 잘못 끼우고  
나니까 보통 부부들이 살아가는 형태, 딸  
놓고 아들 낳고 집장만하고 차 바꾸고 여  
행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그냥  
멀어진 거잖아요, 갈 수 없는 거고 그러니  
까 삶에 대한 회한이죠, (참여자 1)

그때도 나이는 다 큰 30살이나 된 처자  
가 저 사람 아니면 아니야, 저사람 아니면  
절대 아니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적극적이니까 쉽게 만나  
의미부여도 안 하고, 아휴(한숨) 자기 전  
인생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쉽  
게 생각했는지, 서른이 되면 어떻게 마흔  
이 되면 어떻게 오십이 돼서 결혼하면 어  
때? 그 정도의 자기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익지를 못했  
어, 확실하게 더 중요했던 거는 직장 잃으  
면 안 되고 인생은 단 하나인데, (참여자 7)

참여자들은 배우자 선택과 안정된 직업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회한을 표현하  
고 있다. 그들은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을 가

졌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진로를 잘 준비하여 안정된 직업을 가졌더라면 지금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을 거라 여기며 회한을 갖기도 한다.

- 아물 수 없는 상처

심리적 고통은 지금도 계속 계속(반복)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 말 할 수 없는 분노가 있어요, 지금도 우울하고, 가끔 생각하면 분통터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 속상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처가 된 것이 나를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참여자 1)

아픔은 열어질 뿐이지 열어지고 있고 좀 당당해요, 열어지고 있을 뿐이지, 내 몸과 내 정신은 이미 그 속에 있었고 그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나와서 나의 길을 가는, 내가 그 순간 경험했던 것, 세월이 가면서 열어질 거고 자유로워질 거라고 하지만 그거로부터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것은 아니에요, (참여자 7)

사별이든 이혼이든 상실의 경험은 참여자들의 이후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을 상실했든, 관계를 상실했든 그들의 상처는 매우 깊었다. 그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조금 열려 질뿐 여전히 그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내가 그르친 것 같음

남편의 죽음이 꼭 나 때문인 거 같다는 자책감, ... 내 아들들에게 아빠가 없는 게 나 때문일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

죠... (참여자 3)

사별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떳떳해요, ... 관습이라는 거는 법보다 무서운 거는 누가 족쇄를 채우지는 않아, 그렇지만, 지금 내 핏속까지 흐르는데요, 나는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6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 ... 죄가 아닌데도 죄책감이 있는 거 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깐 깨버린 거 내가 그 얘기를 할 때도 도덕적으로 온몸이 다 부서지더라도 그것을 잘 꾸려나갔어야 하는데 하는 죄책감이 있어요, (참여자 7)

이혼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회의를 품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혼을 후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참여자들은 “자신이 더 노력했어야 했다” 하는 물음을 가질 뿐 다시 그 상황이 되면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별을 경험한 참여자도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가하는 미안함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속상함

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되면서 부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경제적 책임이나 자녀의 양육문제, 의사결정 등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들은 삶의 무게를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따라서 혼자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

움과 혼자 해야만 하는 억울함과 속상함을 경험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양부모가족이 온전한 가족이라 여기며 스스로 위축된다. 이러한 불편함과 부담감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혼자 해야 하는 서러움과 두려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서럽고 화도 나고, 다른 아이 옆에는 엄마 아빠가 모두 옆에서 함께 하는데, 저는 항상 혼자 아이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하늘이 원망스럽게 짝이 없었지요, ...지금도 다른 가족들과 비교되는 나의 모습이 사실 싫어요, 아빠가 아이를 안고 옆에 엄마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항상 쳐다보게 되고 너무나 부럽고... (참여자 2),

두려워요, 아직도 해야 될 게 많다는 게 두려워요, 옛 어른들이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거 같고 아이들이 크니까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덩치가 더 커지는 게 그게 두렵고 ... 애! 그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거 ... 어른으로서 연장자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나서야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른 역할 하는 게 자신이 없어요, 항상 두려워요, (참여자 3)

참여자들은 홀로 부모역할을 해야 하는 두려움과 서러움을 묘사하였다. 그들은 아직 상처에 새살이 올라오기도 전에 육아, 경제적 책임, 교육 등을 혼자 해내야 하며 한부모로서 삶은 자신의 길이 아닌 것 같아 서럽고,

양부모가족과 비교하며 연민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제적 책임을 다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경제적인 것도 열심히 했는데 맨 날 통장은 맨 날 맨 날 앵코야, 그러니까 애 뒤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진짜 00야 내가 더 이상 너 학원비 못 주겠다 이런 말 나올까봐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그게 00야 엄마가 돈 없어서 더 이상 너 학원비 못 대겠다 이 말 나올까봐 응 그게 되게 두려워요, 걱정되고 아휴! 나갈 것도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애를 뒷바라지 못하게 될까봐 되게 두려워요,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거죠, 나 벅차요, (참여자 1)

제가 이렇게 많이 못 배워서 이 사회에 나와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라 못 배운 사람이라 선택의 폭도 좁고 급여차이도 확나고 그런 거 보면서 원망을 하면서 대학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내가 벌 수 있는 게 없고 대학은 고사하고 당장 집도 해결 안 되고 엄마한테 얹혀사는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내가 키울까 내 몸도 하나 못 추리겠고 그러면서 되게 두렵고 짐스러웠어요, (참여자 8)

참여자들이 홀로 부모역할을 해야 하는 어려움 중에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적인 부분은 참여자들에게 책임감을 넘어 엄청난 중압감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된 직업을 가진 5 번 참여자(공무원) 외에는 대부분 가정이 해체 될 때 전업주부 상태였다.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대졸이었지만 갑자기 안정된 직업을 구하는 게 여의치 않아 파트타임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힘든 삶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짐**

마음과 달리 아이한테 너그럽지 못하고 때리기도 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 아이를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보다는 많이 때렸어요,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알지만 내가 숨이 막히는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만만한 게 애죠, 돈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애가 뭘 알겠어요, 가슴 아플 뿐이죠, 어디서도 위로 받을 때가 없었어요, ... (눈물) (참여자 4)

말 폭력으로 애를 반으로 죽여버려요, 말 폭력 부드러운 말 폭력 속에 느낌으로 그게 있어요, 그러면 저항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항하다가 지지요, 아이들은 백전백패죠, 처참하게 지는 거죠, 그랬을 때 안쓰럽죠, 그런데 아이는 고스란히 안고 풀지를 못하고 풀 데가 없죠, ... 저는 발설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 같아요, 걸은 평화롭게 가는 걸 같지만 그 내면은 슬프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아이한테 그 정서가 전달이 되는 거죠, (참여자 7)

참여자들이 한부모가 되면서 정체성의 변

화,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아직 자신을 추스르지도 못한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아이를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해도 그들은 혼자서 부모역할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됨에 따라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표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참여자들이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아이 돌보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할 통로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대신할 수 없는 아빠의 빈자리**

아이들한테 아빠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남자니까 자위를 하잖아요, 작은 애는 요즘 하는 거 같더라고요, 큰 애 때는 어떻게 그거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 그러가지고 제가 일부러 곳곳에 휴지를 놓고 막 그랬는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깐 그런 거 정말 죽겠더라고요, 막,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언 그런 거를 못하겠더라고요, ... 아직도 힘들어요, (참여자 3)

아들이 초등 고학년 되니까 나로서는 해준다고 해준 게 아들이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아빠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도 아빠 없이 사는데 특별히 불편이나 불만은 없지만 아빠역할,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였어요, 내가 여자니까 딸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 아들이랑 트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 아빠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행동반경도 좁아지고 스케일도 작아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참여자들은 한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음을 느낀다고 표현하고 있다. 남자 아이인 경우 사춘기가 되면서 생활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과 엄마와 아빠가 함께 양육하면 아이 성격도 더 원만한 텐데 하는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 더 잘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역적으로 수영을 하나 가르치려고 해도 내가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요, 그걸 못하니까 애가 수영을 못 배웠죠, 그러면 그게 꼭 내 탓 같아요, 내가 애한테 혜택을 못 준 거 같애, 그러면 또 속상하고, 누가 놀러 갔다 왔다 하면 우리 애는 바닷가도 한번 안 놀러 갔다 오고 6학년이 됐네 생각하면 속상하고... 우리 00가, 어려서부터 본 게 없어서 데리고 다녀봤자 제가 미술관이 나 좀 다니고 음악회 한두 번 다닌다고 경험이 확 늘어나나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확장될 수 있는 앤데 ... (참여자 1)

혼자서 별어서 혼자서 애한테 다 해줘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엄마들도 그렇지만, 애한테 마음껏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참여자 2)

참여자들은 다른 부모들만큼 못해주는 것 같아 아이한테도, 자신에게도 안타까운 마음

을 느끼고 있다. 즉 아이에게 다른 부모들처럼 잘 해주고 싶으나 마음같이 잘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한 부모로 삶을 재구성해나감**

참여자들은 이제 여자가 아닌 어머니로서 삶을 살기 시작한다. 즉 한부모로서 삶을 계획하고 수정해나간다. 아이를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아이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고자 애쓴다. 또한 아이는 자신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날을 잘 대비하도록 채근하며, 할 수 있는 한 아이에게 집중하고 잘 키우려 애쓴다.

**- 아빠 뿔까지 다해 잘 키우려고 애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니까 부모의 사랑이 공통적 아버지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아버지 사랑을 많으면 적극적이고 인생을 잘 꾸려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00이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 부담이 되게 크죠, 내 영향 하나만 엄마영향 하나만 받으니까 소심하면 어쩌나 애가 어디 가서 주눅 들면 어쩌나 마음이 이런 것도 걱정되고, 항상 지켜보고 더 많이 관찰을 더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걱정돼요, (참여자 1)

나 혼자만 애 키우는 거니까 애가 잘 되고 못되고 하는 거는 거의 내 책임이나 마찬가지로니까 최대한 노력해요, 전적으로 내 책임이나 마찬가지로니까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해요, 힘은 들지만 최대한 할려고 해요, (참여자 2)

참여자들은 아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최선을 다해 잘 키워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더 많이 집중하고 아빠의 몫까지 다 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애씀

재혼 생각 안 해본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재혼을 하더라도 남의 자식을 받아주는 아주 진짜 그리고 요즘 보면 의붓딸 성폭행하는 것도 많고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딸 키우다 보니까 나중다고 애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고 또 돈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걸리는 게 이 사람 돈으로 내 딸한테 쓰면 내가 눈치 보이고 내 딸한테 당당하지 못하고 그게 당장 싫은 거예요, 고민 하다가 결국 재혼 안 했어요... 우리 둘이 별어서 먹고 살면 마음 편하고, (참여자 6)

나 아니면 00이 몸도 안 씻기는 할머니가 키우겠어요, 애 내 몰라라 하는 아빠가 키우겠어요, 왜냐하면 이혼할 때 고아원에 데려다 주라고 했어요, 우리 형제가 동생인 내 가슴에 못 박는 얘기하는 언니들이 00이 키우겠어요, 어떻게든 애 데리고 살아야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반복) 그래서 찾은 게 교회고 거기 갔다가 좋은 집사님 만나 상담받고 거기서 시발점이 되니까 거기서 상담 끝나도 아 이렇게 받을 곳이 있구나 찾아 보고 (참여자 8)

참여자들은 아이를 위해 여자가 아닌 어머니

니로만 살기로 결심하고,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을 선택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고, 감당하기에 버겁고 힘들어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견뎌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낙인과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지킴

아직도 힘든 게 남들이 나를 색안경끼고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상상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불미한 사건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그렇게 행동하든 안하든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불편해요, 봉사단체에서 남자단원들한테도 조심해요, ...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만나서 뭘 안하고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편이에요, (제한이 많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 문제죠, (참여자 3)

여자가 애 하나 데리고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회식을 하자고 해요, 그게 아무래도 남자가 섞이다 보면 그리고 저는 남편이 없다보니까 그게 말이라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밥 먹자 술 먹자고 그러면 나는 딱 잘라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딸 데리고 갈 자리가 아니면 안 간다, 그쪽에서는, ... 여자 혼자 살면 당연히 밥 먹자고 하고 술 먹자고 하면 당연히 나올 줄 알아요, ... 나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자리면 안가요, 그런 식으로 되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니까 싫거든요, 혼자 사니까 만만하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딱 차단을 하죠, (참여자 6)

참여자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이나 편견으로부터 미리 자신을 단속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않고 또 쉽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도 않는다. 참여자들의 그러한 행동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처럼 그들은 관계에서 많은 긴장과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앞날을 잘 대비하도록 채근함

내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건강할 때 뒷바라지 할려고 할 때 내가 힘써서 너 인생의 길을 찾지 않는다면 내가 나중에 아프면 어느 누구도 너를 도와 줄 수 없어, 너가 지금 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그런 잔소리도 한두 시간 해요, (참여자 1)

조금 철이 들었을 때 애들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생명보험은 저기 있고 집 상속은 너네들이랑 엄마 이름 다 올려놨고 통장은 뭐 뭐 있고 알고는 있어라,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심각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생명보험 증권 옆에다는 유서를 써놓은 것도 있고 ... 만약에 엄마가 없으면 니가 동생을 보살펴야 되고 집 문제도 서로 공평하게 치우침 없이 너가 형이기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잘 해서 니가 해결해야 되는 거다, 주체는 너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어요, (참여자 3)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이는 앞날을 잘 대비하여 자신과 같은 혼란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채근하는 경향이 있다. 사별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건강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쓰고 유사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두면서 살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혼한 참여자들은 자신이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해 겪는 경제적 고통을 자식은 겪지 않도록 채근하기도 한다.

- 보답해주리라 믿으며, 아이를 최우선으로 살아감

너가 잘 돼야지 안 그러면 내가 오래 살고 싶겠니? 나는 너가 아프면 난 세상에 다가 너데 아프면 안돼, ... 너가 경제적인 능력이 확고해져서 엄마용돈도 주고 그래야 엄마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가 경제적으로 자립도 못하면 엄마가 오래 살고 싶겠니?(웃음) 내가 오래 살고 안 살고는 너한테 달렸어 ... (참여자 1)

애가 자주 아프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애 아빠가 그렇게 됐는데 애까지 그렇게 되면 난 정말 못산다 불안해서 자꾸 애한테 신경이 쓰이게 되죠, ... 애 건강 많이 신경 쓰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애한테 신경 쓰게 되더라구요, 어떤 엄마들은 안 그러는 엄마도 있는데 애는 맡겨놓고 그러는데, 저는 애한테 조금 더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 만약에 애가 커가지고 결혼하고 혼자 남으면 굉장히 허무할 거 같아요, 나의 모든 거는 없고 거의 90%는 애예요, (참여자 2)

아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강한 책임의식은 아이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이자 책임감 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한 과도한 집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들에게 아이는 남편이자 친구이며 삶의 거의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이에 대한 적절한 균형감을 잃고 때로는 지나치게 밀착되거나 닭달하거나 부채의식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어긋남과 방어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참여자들은 한부모로서 삶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관계양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의 관계는 어긋나거나 방어적인 관계로 전개된다. 한부모가 되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경계를 하는 관계로 바뀐다. 그들에게 관계는 또 다른 도전이며 두려움이다. 참여자들은 한부모가정이라는 ‘다름’에 대해 스스로 위축되거나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편견이나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 민감해진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의 지지가 필요함에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관계를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 저절로 기가 죽음

인간적으로 정말 비판을 해야 될 때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 거기서 큰소리 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호소력이 없어요, ... 이런 것에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도 의기소침해지는 게 뭐냐 하면 나를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자신이 없는 거야, 차라리 결혼 안했었거나 그렇다

면 싱글들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나는 이렇게 해서 나의 길을 가고 나는 사회 할 일을 하면서 산다, 당당하게 자기 일을 키우는데,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힘을 못 받아, 너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호소력이 있어 '가화만사성' 이라고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는 거야, ... 거기로부터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참여자 7)

아 저 사람이 날 알면 어떤 눈으로 볼까? 이런 움츠러지는 거 그것도 말 못하는 거죠, 교회 갔는데 00이랑 같은 나이 또래 애가 있었어요, 그 애는 거기 전국구야 많이 괴롭히는 개구쟁이인 거예요, 근데 애 엄마 아빠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엄마는 집사고 봉사도 되게 많이 하고 인지도도 높아요, 저는 겨우 교회 가서 헌금도 한 푼도 안내고 위축돼 있는데, 그 애가 우리 00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와서 엄마 누가 나한테 괴롭힌다고 하면 그래 속상하겠나 이렇게만 하고, 개한테 가서 그러지 말라고 못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계단에서 막 때밀더라구요,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말을 못했어요, 위축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구요, (참여자 8)

참여자들은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해도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좌절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주눅이 들기도 한다. 이것이 대인관계도 그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피붙이에게도 마음이 닫힘**

엄마나 형제들은 남보다 못했어요, ... 물론 경제적인 거는 기대 안했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위로해준 사람 없었고 남들처럼 친절에 얹혀살 수도 없었고, 그야말로 남보다 못했어요, 세상에 오직 아이와 나만이 있다고 생각하니 참 서글펐어요, 더 괴심한 것은 남동생이 상견례 하던 날 엄마한테 누나가 이혼해서 창피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가 힘들 때 나한테 빌려간 돈은 갚지도 않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한 적 없으면서 이제 내가 창피하다고... 내가 무슨 죄인인가? ... (참여자 4)

언니들한테는 감히 감히 내가 말을 맞받아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약에 바치니까 막판에는 내가 숨 못 쉴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 한번 오기를 했어, 병원비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길 했어,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자꾸 상처를 줘, 만고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너 힘들냐? 말을 한마디 해,, 돈을 한 푼 줘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오십만원도 아니고 그 만오천원 송금해주라고 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모진말로 쏘니까 막 괴심한 거예요, 남편과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부모 형제자매 관계도 다 어그러지더라구요, 오빠도 언니도 무슨 소용 있냐고요, 남들보다 못한테, (참여자 8)

참여자들은 친정부모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의 형제·자매들도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며 신경 써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무관심해지고, 참여자들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할 때 큰 상처가 된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힘으로는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고, 곤궁한 생활이 지속되면서 형제·자매와 관계에서도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닫힌다는 것이다. 결혼해서 잘 살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던 형제·자매 관계마저도 어긋나고 소원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고마우면서도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은 친정**

부모님이 나를 집에서 같이 살아주지 않고 애를 봐주지 않고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게 두려워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가 보기 싫어도 아버지 혜택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경제) 제일 두려운 존재인 거 그데요, ... ,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면 고마운 줄 모른다고 ... 우리 엄마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마흔에 부모 부부싸움을 지금도 봐야 되고 내 자식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게 그게 너무 불행해요, 그런데 고맙죠, 애 봐주고 밥 주고 전기 맘대로 쓰고 물도 마음대로 쓰고 물 값 안내니까(웃음), 막 불행을 느껴요,, 불행을 (참여자 1)

옛날만큼 부모님이 의지가 ... 그때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고 부모님 말고는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고맙고 많이 그랬는데,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 뭐 어찌고 저찌고 나한테 화살이 자꾸 돌아오더라구요, 내가 뭐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막 해줄 상황도 아니고 얹혀살면서 사실 생활비도 많이 못 드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

나면서 점점 부모님도 나한테 불평을 많이 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되고 나도 애를 좀 더 잘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참여자 2)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아문제로 어쩔 수 없이 친절에 사는 경우가 많았다. 사별하거나 이혼을 했을 때 또는 미혼모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의지할 곳이 친절이다. 처음에는 친절 부모님이 의지가 되고 살뜰한 보살핌과 배려를 받으며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 배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무관심해지고 아이도 기대만큼 돌봐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낀다. 또한 참여자들은 친절 부모님과 삶의 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친절에 기대어 살지만 집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친절은 고마우면서도 불편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며 참아야 하는 곳이다.

#### - 편견과 마주해야 함

그걸 농담이라고 입에 올리나 저 사람이...내가 남의 남편을 깔떡대는 것처럼 그런 건가? 내가 아무리 나는 아무렇지 않고 편하게 산다 해도, 누구가의 시선에서는 왜 그렇게 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구나! 나의 빈자리를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구나! 내가 갈급해 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빈, 텅빈, 반쯤 비어있는 상태의 여자로 볼 수도 있겠구나! 그거는 내가 잘못 끼운 단추 하나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잘못되고 잘못되는 느낌이 힘이 드는 거예요, 사회적 편견인 거지, 내가 무슨 삼류소설의 주인공도 아니고 (참여자 1)

어느 날 제가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로 둔갑되어 있더라구요, 이 남자 저 남자는 꼬리친다,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있더라구요... 따로 만나고 그런 적도 없어요, 열심히 할려고 한 모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시기심이 있었는지... 지가 하면 인사하는 거고 내가 하면 꼬시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가 애 이게 나같이 혼자 있는 여자들의 현실이구나!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남편이 없으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것이구나 현실은 냉혹하구나! (참여자 3)

참여자들은 사회생활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편견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참여자들은 남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반복해서 불편함을 겪으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 장혜경(2002)은 한부모가정 아버지보다 한부모가정 어머니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편함을 더 많이 겪는다고 한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남성보다 여성 한부모에 대해 편견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양부모가족과 어울림이 불편함

사회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게 조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하게 되더라구요, 딸내미 친구 엄마가 같이 놀러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오히려 내가 피하고, 내가 저절로 피하게 되고 ... 그쪽은 항상 딸내미 친구, 아빠 엄마 같이 뭐 만약에 딸내미 친구가 연주회를 한다 그러

면 거기 아빠 엄마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항상 나랑 애만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모임 같은 데는 안 나가고 아예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자꾸 피하게 돼요, 항상 밝은 척 잘 사는 척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임에 가서 맨 날 없는 거 티내고 울상 짓고 살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참여자 2)

자유로운 사람 싱글이라든가 별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만나기가 편하고 자유로운데, 그 엄마 아빠 아이들과 이렇게 가족이 탄탄한 가족과 함께 교류를 하고 만나는 거는 그거는 교류가 안 되는 문화고, (안 돼요?) 안 돼,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만남의 지점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을 중심으로 서로 친하면서 그 문화가 같이 어울리기에 그림이 맞고 흐름이 원활한 거지, 여기는 서로서로 짝이 되가지고 어떤 놀이문화든 모임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둘이 모녀 둘이 거기 가서 그게 안 어울리는 문화, 그러니까 그게 바운더리가 협소한 거죠, (참여자 7)

참여자들은 양부모가족과 어울리는 데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양부모가족은 부부와 아이가 함께 나오는데 참여자들은 자신과 아이만 나감으로써 아이아빠의 부재가 신경 쓰이고, 또 양부모가족과 어울리더라도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힘든 내면을 감추고 괜

은 척, 행복한 척 해야 하는 불편함과 혹시 상대방이 오해할까 봐 언행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숨겨야 할 비밀

애가 3학년 되가지고 아빠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 당장 아빠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단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게 문제죠, 가끔 가다가 아빠 사람들한테 살아계시고 외국에 있다 해라,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학교 친구들이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편견 다르다는 거, 편견으로 바라보는 거 싫기 때문에 나도 애한테는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라고 그래서 살아있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참여자 2)

난 32살의 젊은 나이였고 직장에는 남편 없는 사람은 100명중 1명꼴도 안 되는 특별케이스에 속한 듯 했으니,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진짜 많이 우울했어요, ... 학교에서 가정조사서 낼 때 아빠 성명 비워두는 것이 싫었는지 아빠 이름 그대로 적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아이들도 그랬어요, 집에 아빠가 없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친구들이 알게 되는 걸 싫어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렇잖아요, 사회적 낙인 같은 거요, (참여자 5)

참여자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

부모가정'이라는 가족의 정체성이 드러날까 봐 불안해한다. 그들은 학교에서 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자신의 아이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사실을 기꺼이 밝히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학부모 모임에서도 “애 아빠는 뭐 하세요?” 라는 말에 난감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아이들도 “너 아빠 없지?” 라는 말에 큰 상처를 받고 그 문제가 결국 어머니들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가슴앓이를 하기도 한다.

**홀로 해야 하는 힘겨움**

참여자들은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한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서 심신은 지치고, 아이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답답함과 고단함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 묶여있는 느낌**

내가 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20대에 내가 뭔가를 더 준비했었더라면 내가 30대에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텐데 (경제적으로) 응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았을 텐데 지금도 내가 벌써 내려와서 논문을 쓰고 그랬더라면 졸업을 하고 내가 다시 박사과정을 하든 지금 더 나가는 좀 더 진일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료에서 걸려 가지고 뭔가 떨치지 못한 게 속이 상한 거예요, (참여자 1)

나이가 50 가까이가 됐는데도 그냥 9

시간 열 시간 그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그것,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나이에 걸 맞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대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함께 보모로 살아가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딸리고... (참여자 7)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이 정체돼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이혼 또는 사별을 겪거나 미혼모로 살아오면서 경제적 위기가 있었고,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회복되더라도 기대만큼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속상함과 정체된 느낌을 갖고 있었다.

**- 심신이 지쳐감**

점점 지쳐가고 힘이 없어요, 30대 초반인데 ... 내가 생각해도 쓰러질 거 같고, 그때 혈압이 60~80이고 빈혈기까지 있었어요, 주인아줌마는 저보고 30대이지만 신체연령은 60대라고 놀리고 뭐라 그러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건강하고 등산도 많이 다녔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지고 마치 방전된 배터리 같아요, (참여자 4)

선생님 보시다시피 제가 많이 굉장히 경직되어있어요, 몸이 딱딱해요, 이게 많이 굳었던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는 어디 아프다는 데는 없어요, 그래도 많이 지쳐요, 힘들어요, (참여자 7)

참여자들은 자신을 챙길 겨를도 없이 혼자

서 오랫동안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곤함이 누적된 상태에 있다. 여기서 피곤함이란 일시적인 피로가 아니라 피로가 누적된 삶의 고단함을 의미한다. 그들은 남편의 애정적, 정서적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부모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심리적인 에너지와 신체적인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외로움

항상 허전합니다, 외롭다 그런 느낌, 아 들들이 있어서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나마 나에게 행운이라고 위안하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외롭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친구는 친구일 뿐이고 언니는 그저 언니 일 뿐이죠, 내가 힘들다 해서 항상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남편이라고 다 그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댈 구석이 없다는 것은 참 외로운 거죠, (참여자 3)

그리움, (뭐에 대한) 원초적인 인간의 그리움이 있다고 느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리움은 말이 통하는 거... 그냥 척 보면은 아 그래 그렇지 뭐, 그래, 슬프지, 말 안 해도 전율이 같이 느끼고... 혼자서는 그렇지만 둘만 있어 봐요, 뭐가 겁나요, ... 어두운 밤 길을 둘이 딱 가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마음 통하고 그 그리움이 간절한 거예요, (참여자 7)

참여자들은 한부모로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으나 마음 한 구석에 깊은 외로움이 스며있음을 느끼고

있다. 아이에 집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혼자인 자신에 대한 연민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한 부모로서 삶이 영글어 감

참여자들은 많은 고난을 넘어 점차 한부모로 안정되고 익숙해져 간다. 혼자서 아이를 잘 키워냈다는 자긍심과 안도감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한부모로서 삶을 수용하게 된다. 하지만 그 수용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체념적 수용'이고 '아픈 수용'이다. 한편 그들은 힘들 속에 자기 발전한 기쁨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한부모가정 어머니의 삶이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의미다.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힘들기도 하는 순환을 반복하나 예전처럼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다.

- 아이가 잘 키워서 위안이 됨

다행스러운 게 애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게 해요, ... 어떻게 보면 개를 정서적으로 개 혼자 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자기 걸 지가 알아서 챙겨요, 혹시라도 지 앞가림 못하면 제가 그것까지 신경 쓰면 살수가 없죠, 그건 지가 알아서 신경을 써요, 그런대로 공부도 잘 해요...선생님도 애를 좋게 평가하고 잘해요, 그래서 걱정을 덜 해요, 우리 애가 똑똑하다는 거 인정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참여자 1)

힘들게 하는 부분이 더 많지만 순간순간 아 이래서 자식 키우는 구나 그런 마음

들 때도 꽤 있어요, 큰 애 같은 경우도 아주 소소한 거지만 뭐 엄마 아이구 허리야 제가 요새 허리야 소리를 자주해요, 허리야 식신이야 하면 엄마 옆드려봐 주물러 주게, 큰 애 힘이 좋아요, 묻지도 청하지도 않았는데 해주는 거, 가끔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얘기할 때, 남들이 칭찬을 해줄 때 그런 느낌을 가끔 받아요,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우지는 않았구나! ... 벌써 이렇게 컸어, 듣지하다, 남들이 칭찬할 때는 아 인정받는구나 싶어서 조금 안도감이 생기고 (참여자 3)

참여자들은 힘겨움 속에 혼자 아이를 키워낸 뿌듯함과 아이가 잘 커 준 것에 대해 위안을 느낀다는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아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 컸다는 칭찬을 듣거나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잘 키웠구나!’ 하는 안도감과 위안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 부모로 안정되어감**

10년이나 되다 보니 조금 적응이 됐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래도 애하고만 많은 생활을 하고 힘들다 힘들다 생각하는 거는 많이 최소한 이제 많이 줄어들고 정신적으로 많이 괜찮아진 거지, 경제적으로는 좋아진 거는 없고, 애 아빠가 애가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애가 잠들고 나면 계속 울었어요, 혼자, 친정집에서 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날 혼자 욕상에 올라가서 울고 했었어요, 지금은 애가 많이 컸고 대화도 하고, ... 조금

안정이 됐어요, (참여자 2)

그 당시와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달라요, ... 지금은 많이 성숙되고 안정되어 있어요, ... 아들은 처음 키워보고 하니 ... 남자에 대해 모르니까 내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다 보니 아들이랑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초5학년 때, ... 난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된 거죠, ... 아이들이랑 좀 더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하고, 나도 직장생활 잘 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게 다예요, 다른 걱정은 없다는 뜻이에요, (참여자 5)

참여자들은 충격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한부모로서 익숙해져 간다. 그들은 아이가 크면서 대화도 가능하고 아이에게 의지하면서 한부모로서 안정되고 적응해나간다. 그렇다고 자신의 운명이나 현실을 완전히 수용하거나 승화된 것은 아니다. <아몰 수 없는 상처>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보면, 참여자들은 가슴 한 구석에 현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아픔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힘겨움 속에 내 발전한 기쁨도 있음**

내가 그래도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내 개발을 하지 않았나? 그냥 엄마 아빠 밑에 있다가 결혼해서 탄탄하게 살았으면 참 가진 것 없이 오만한 사람이 됐었을 텐데, 내 스스로 일을 하면서 내 수준(웃음) 성장도 되고 내가 벌어서 내 웃도 내가 사고 신발도 내가 사고 그것부터가 제 독립이었던 거 같아요, 제 독립, 힘들긴 무지 힘들어요, 내가 일을 하면 그만큼 나도 공부를

하니깐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도 발전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그게 내발전이라는 생각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 같아요. (참여자 1)

한편으로는 이유야 어쨌든 노래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물론 그거는 법벌이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걸 했~ 하잖아요. (참여자 3)

참여자들은 힘겨움 속에 나름대로 홀로서기 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들은 한부모로서 삶이 지극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개발도 하고,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

####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는 참여자들의 경험에 관해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의미중심으로 기술하는 단계이며, 현상학 연구의 최종단계다.

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되면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경험한다. 그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다. 이런 변화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와 관련된다. 젊은 나이에 겪는 이혼 또는 사별은 일회적인 생활사건이 아니라 이후 삶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를 변화와 부모역할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변화의 측면

#### 정체성의 변화

참여자들은 행복한 앞날을 기대하며 가정을 이루었으나 예기치 못한 사별 또는 이혼이라는 큰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양부모에서 ‘한부모’라는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된다. 결혼의 희망단계에서 느닷없이 정체성의 변화를 맞이해야 했던 참여자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며 방황한다.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양부모에서 한부모로 새롭게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참여자들의 결혼지속 기간은 2년에서 10년 이하의 짧은 기간이며 대부분 5년 내외였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어린 시기이므로 충격과 혼란은 매우 컸을 것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친정에서 충격과 슬픔을 삭이며 한부모로서 삶을 시작한다.

#### 역할의 변화

한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혼자서 견뎌야 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되면서 모든 것을 홀로 해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아이는 한쪽 부모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에게 닥친 역할의 변화는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 전적으로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한부모 역할과정에서 경제적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여자 5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는 그 당시 전업주부 상태였다. 따라서 경제적 책임은 그들에게 육중한 삶의 무게였다. 참여자들 중 안정된 직업을 가졌거나 집이 있는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참여자 중 2명만이 집이 있

고, 한 명만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그 이후에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으로 취직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결혼 전에 경제적 활동을 하였으나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적 활동을 중단한 참여자도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 중 양육비 지원(월 삼십만원)을 받는 참여자는 단 한명 뿐이었다. 대부분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한다하더라도 아이 돌보는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들어가서 사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런 역할의 변화는 한부모 어머니와 아이에게 기존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

### 관계의 변화

한부모가 되면서 정체성의 변화와 역할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변화는 양부모와 어울림이 불편함, ‘한부모’라는 것을 밝히기 꺼림함, 원가족과 소원해짐, 사람들과 거리두기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양부모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다는 경험을 표현하였다. 그 이유는 서로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고,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명랑한 척, 행복한 척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도 만남에 영향을 준다.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서 양부모들과 만남을 피하게 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한부모가정’이라는 사실

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부모가정’이라는 사실을 밝히느냐 숨기느냐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아빠 없는 아이’로 낙인찍히고 상처받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아이의 가정환경조사서에 아버지 이름을 써넣고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한다. 아이뿐만 아니라 참여자 자신도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관계에 민감해진다. 따라서 자연히 ‘한부모’라는 것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관계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 이들에게는 불편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전에 별 문제가 없었던 원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거나 거리를 두는 양상으로 변모해간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보면, 사별이나 이혼 초기에는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이 배려해주고 챙겨주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관심해지고 갈등이 생기거나 소원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형제·자매와 경제적인 차이나 생활수준의 차이도 서로 멀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이 해체된 후 가족, 이웃, 친구들도 초기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멀어지거나 무관심해진다는 Berman & Turk(문현숙, 1999, 재인용)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친정에 있다 해도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는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이 친정에 사는 참여자들은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편함이나 갈등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



참여자들이 사람들과 거리두기 하는 것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왜곡과 불이익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는 나름의 전략이다. 이는 참여자들 스스로 ‘한부모가정’이라는 ‘다름’에 대해 위축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편견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혹시 있을지도 모를 편견이나 불이익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일반 사람들 보다 관계에 심리적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혼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친정의 암묵적인 냉대와 사회에서 소외된 채 이혼 또는 사별 참여자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양상과는 달리 자녀와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에게 아이는 친구이고, 남편이고, 삶의 거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서로 의지하면서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양부모가족보다는 한부모가정 어머니의 경우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부모-자녀간의 유대관계가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문현숙, 2002; 이나경, 2002; 허정은, 2002; Afifi & Schrodt, 2003; Kleist, 1999)와 일치한다.

####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

한부모 여성이 된다는 것은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하며, 지금까지 익숙했던 생활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며, 새로운 관계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자연히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한부모 초기

한부모 초기를 가장 잘 은유하는 말은 아마도 ‘삶이 산산조각 난’과 ‘가슴이 얼어버린’이라는 말일 것이다. 한부모 초기는 삶이 산산조각 난 절대 위기의 순간이다. 한부모 여성이었던 신현림(2005)은 “이혼한 사실을 들여다보면 뜨겁게 끓인 물에 온 가슴을 데어 빨갱게 남은 흉터처럼 아프다”라고 했으며, 박소원(2007)도 그때의 경험을 “그 길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내 가슴을 얼어버리게 했고, 내 가슴의 주홍글씨는 생각보다 진하고, 붉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현림(2005)과 박소원(2007)의 경험은 이 연구의 참여자들의 심정을 아주 잘 대변해준다.

한부모가 된 초기에는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혼란과 슬픔에 압도된다. 참여자들이 초기에 주로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은 슬픔, 분노, 배신감, 혼란, 우울, 불안, 무력감, 삶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 믿기지 않음, 원통함, 자신에 대한 회의, 회한, 아이에 대한 부담감” 등이라고 묘사했다. 참여자들은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자신만 한부모가 된 것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또 어떤 참여자들은 막막함과 슬픔을, 또 어떤 참여자들은 이런 운명을 초래한 자신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회한으로 괴로워했다.

이와 같이 초기는 참여자 자신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참여자와 아이가 남겨져 있는 것이다. 참여자 1과 3은 처음에는 “내 슬픔에 빠져서 아이를 돌보지 못 했어요”라고 하였고, 참여자 7도 “내 자신도 일어설 수 없는데 아이가 부담스러웠고 제대로 돌보지 못 했어요”라고 하였다. 참여자는 2도 “처음 1년 동안은 아이를 재워 놓고 옥상에서 날마다 울었다”고 하였다. 따라

서 초기에는 한부모 여성들이 자신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아이는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갑작스럽게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의기소침해지고 관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등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볼까봐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한부모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김상희, 2004; 박소원, 2007; 성정현, 1999; 송미승, 2001; 윤성은, 2008)들이 한부모 여성들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고,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거나 결점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한부모 여성의 자존감은 자신은 물론 자녀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서적 지지와 자존감을 강화하는 개인 및 집단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송미승, 2001).

참여자들은 혼자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다. 두려움은 혼자서 부모 노릇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와 경제적인 책임과 관련된다. 따라서 한부모 초기는 심리적인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와 아이에 대한 책임문제까지 겹치게 됨으로써 매우 힘든 시기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친정의 도움으로 아이 돌보는 문제는 나름대로 해결해 나간다. 하지만 그들의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별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질 것이다.

### 한부모 중기

중기는 참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부모가 된 지 대략 5년 정도 되었을 때다. 이 시기는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나름대로 사회에 적응해나가려고 하나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을 주로 겪는다.

고정수입이 없는 참여자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큰 고통이 된다. 취직을 하려해도 마땅치 않고, 파트타임 또는 비정규직 등의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린다. 참여자 3과 4는 경제적인 부담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이들에게 아이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감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참여자들은 두려움과 좌절감, 무력감, 버거움, 불행감, 아이에 대한 미안함 등을 경험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관계문제가 새롭게 부각된다. 관계의 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기도 하지만,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관계는 예민해지고 피상적인 관계로 변하고, 원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짐에 따라 점점 더 외로움을 경험한다. Rando(1991: 최대제, 2010, 재인용)는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사별 3-24개월 내에 가장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이 시기부터 사회적 지지는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도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시기에 가족과 소원해지고 사회적으로도 거리를 두면서 소외감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아이에 대해 늘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에게 한쪽 부모역할을 상실하고 양쪽 성을 학습시킬 수 없는 데 대한 미안함,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사춘기 아들을 둔 경우 생활지도 하는 데 어려움과 미안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김상희(2004)와 황은숙(2005)이 한부모 여성은 자녀에 대해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은 참여자 자신의 연민이 투영된 부분도 있다. 참여자 3과 4는 ‘아이가 나처럼 가엾게 느껴진다’고 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중기에는 참여자들이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현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안정되어 간다. 한부모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김상희, 2004; 황은숙, 2005; 윤성은, 2008)에서 시간이 지나면 고통을 극복하고 수용의 단계가 되며, 이 단계에서는 일상이 편안해지고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경험진술과 관찰을 살펴본 결과 표면적으로는 수용하고 안정된 듯하나 ‘체념적 수용’ 또는 ‘아픈 수용’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념적 수용’이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하기 싫은 마음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신만이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며 잘못된 일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는 피해의식 또는 낮은 자존감과 연결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참여자 1과 3과 4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피해의식이 있으며, 남편 사랑하는 사람과 애기할 때도 화가 난다고 하였다. 박소원(2007)은 싱글맘들의 열등감은 꽤 뿌리가 깊어서 때론 엉뚱한 일에서조차 불쑥 솟아올라와 스스

로를 괴롭힌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홀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지만 그것을 해소하거나 지지받을 통로가 없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못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참여자 3과 4와 7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풀었기 때문에 자신이 견딜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참여자들의 심신의 상태가 아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참여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의식적으로 아이에게 어머니에 대한 부채의식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한부모로서 삶에 전력투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 연구 참여자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참여자들 모두가 심신이 매우 지쳐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나이에 비해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소진되어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홀로 부모역할을 해야 한다는 역할긴장과도 관련된다(최명선 외, 2007). 이 연구의 참여자 8명 모두가 체력저하를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자 모두가 심신의 에너지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한부모 여성은 양부모가족보다 의기소침, 신경과민, 충만한 에너지 부족 등의 심리적·정서적인 부분에서 저하를 보이며, 심리적, 사회적 부담은 신체적인 통증을 가져온다는 신옥주(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애정적,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의욕이 없고 우울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배미영, 2009; 정현숙, 2002)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런 힘겨움 속에도 참여자들은 아이가 잘

커준 것에 대한 안도감과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을 갖긴 했지만 사회적 경험도 넓어지고 자신을 위해 공부한 것에 대해 자부심과 성취감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부모 여성의 삶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장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가슴 한 구석에는 ‘체념적 수용’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은 앞에 제시된 문학과 예술작품에 표현된 어머니 또는 한부모 여성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참여자들이 부모역할 과정에서 아이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는 그림 1의 <요람>에서 잘 표현되었고, 그림 2<어머니>는 참여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깊은 주름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3<홀

어머니의 밤>도 참여자들의 본질적 주제를 통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사별 참여자와 이혼을 경험한 참여자와 미혼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혼을 경험한 참여자들 사별을 경험한 참여자들 미혼모이든 간에 ‘한부모 여성’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혼한 한부모 여성이나 미혼모가 사별 참여자들보다 더 열악한 경향이 있었다. 사별을 경험한 참여자는 남편과 살던 집에서 살거나 살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고, 또 남편의 유산을 물려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혼한 참여자는 모두 남편과 살던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혼한 참여자들은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 사별 참여자보다 더 열악하였다. 이는 이혼한 한부모 또는 미혼모들은 사별한 한 부모보다 경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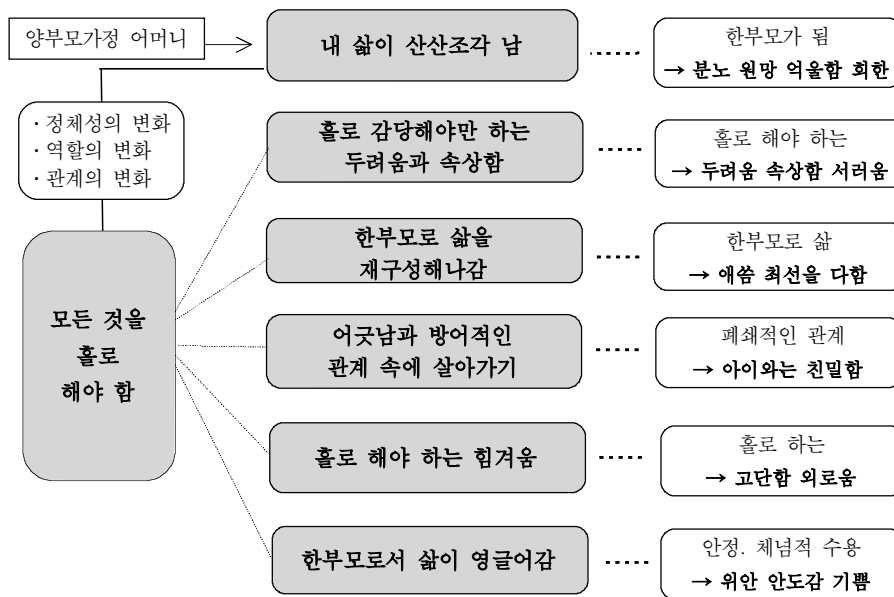


그림 4. 한부모가정 어머니의 부모역할 경험의 구조

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신옥주(2011)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렇다고 하여 사별한 참여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고정된 수입원인 남편이 사망하고 참여자가 안정된 직업이 없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이혼한 참여자나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사별 경험자와 이혼 경험자와 미혼모 모두 분노와 원망을 갖고 있었다. 사별 참여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이혼을 경험한 참여자는 전 남편에 대한 분노와 전 남편을 선택한 회한을, 미혼모는 책임지지 않고 떠나버린 아이아빠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별 참여자든 이혼한 참여자든 부모역할과 관련한 경험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한부모 초기에는 애도작업과 자기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중기에는 관계에 대한 불편함과 직업적인 안정, 아이에 대한 미안함,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데 중점을 두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한부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상담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이들에게 깊이 스며든 ‘체념적 수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논 의

이 연구는 한부모 여성들이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한부모 여성들의 부모역할 경험의 본질적인 주제는 ‘내 삶이 산산조각 남’,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속상함’, ‘한부모로 삶을 재구성해나감’, ‘어긋남과 방어적

인 관계 속에 살아가기’, ‘홀로 해야 하는 힘겨움’, ‘한부모로서 삶이 영글어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들은 정체성의 변화,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 속에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구조는 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동반한다.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은 시기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심리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심리적 지원

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초기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시기다. 초기에는 충격과 혼란, 슬픔, 서러움, 분노, 원통함, 두려움, 막막함, 우울, 회한, 자신에 대한 회의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이는 한부모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공선영, 2000; 김상희, 200; 황은숙, 2005; 최대제, 2010)에서 분노, 실패감, 슬픔, 우울 등을 주로 경험한다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참여자들을 살펴본 결과, 분노와 슬픔, 우울 등을 경험한다는 것은 동일하나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하기 싫은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초기에는 이런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어루만짐의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수 없을 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 한부모 여성들이 괴로움과 슬픔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사람과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 어루만짐이 진행되면 자존감 회복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에 중기에는 아이와 함께 생활과정에서 오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주로 경험한다. 즉 관계에서 오는 소외감, 의기소침, 피해의식, 좌절감, 경제적 문제로 인한 고통, 아이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에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회에서 ‘한부모’라는 ‘다름’ 또는 ‘소수자’의 처지가 되어 편견에 시달리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원가족은 물론 사회적 관계도 거리를 둬으로써 깊은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김상희, 2004; 최대제, 2010). 그러므로 중기에는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편견에도 버티어 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면서 그들만이 겪어야 하는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상담과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험을 보면, 중기에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이 초기와 다르다고 하여 초기에 겪었던 고통이 해소된 것은 아니며 단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기에 해소하지 못한 상처를 가슴에 묻어둔 채 중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체념적 수용’에 대해 집중하여 보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표면적으로는 한부모라는 현실을 수용하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체념적 수용’의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나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마음이 내재해 있으며, 이것은 피해의식과 분노나 억울함 등으로 나타나며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주목해 볼 것은 참여자들의 방어진인 관계패턴과 자녀와의 관계다. 이들의 방어진인 관계패턴은 참여자 자신과 아이를 위

해 선택하는 보호전략이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에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부채의식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으며, 아이에 대한 미안함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아이와 지나치게 밀착되거나 뒤통하는 경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아이를 위해 전력투구한 과정에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다양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젊은 나이에 이혼 또는 사별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극심한 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한부모 여성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심리적 역동을 잘 다룰 수 있는 상담전문가와 상담기관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 정책적 지원

여성 한부모들이 새롭게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들의 적응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어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최영아,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부모 여성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부모 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책적 지원은 초기·중·장기 단계별로 다른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황은숙, 2005; 최영아, 2013).

둘째, 직장에 다니는 한부모 여성들이 퇴근 후에 상담을 받고 싶어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상담실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5시 이후에도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out-reach)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부모 여성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조집단과 집단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망은 한부모가정 부모들에게 완충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Tsushima & Gecas, 2001), 한부모로서 건강하게 적응하는데 꼭 필요하므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자조집단 및 집단상담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부모 여성들이 안정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 아이는 안정된 한부모가정 아이보다 행동과 사회 정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Affif & Schrodt, 2003) 한부모 여성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는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한부모’라는 가족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한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 과정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leist, 1999). 따라서 학교가 먼저 한부모가정에 대한 반편견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는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전제도 고려해 볼 일이다.

이 연구는 참여자들의 부모역할 경험은 <정체성의 변화>,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 속에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와 관련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러한 변화와 구조는 초기와 중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힘으로써 시기별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참여자들이 ‘체념적 수용’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한부모 여성들을 위한 심리상담에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재고하게 한 점

이다.

반면, 이 연구는 한부모 어머니들의 부모역할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한부모 여성의 심리적 경험을 아주 섬세하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부모 여성들이 시기별로 경험하는 세밀한 심리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선영 (2000).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희 (2004). 성인 여성의 배우자 사별체험.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현숙 (1999). 이혼 후 적응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현숙 김득성 (2003).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학정학회지, 38(3), 99-120.
- 민선희 (2009). 한부모가정 아동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원·정일호 (2007). 그래, 우리는 싱글맘 싱글대디다. 멘토르.
- 박정윤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한부모가정 관련 사업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67-178.
- 배미영 (2009). 한부모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성 발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승 (2001). 이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 옥 (2012). 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정현 (1998). "성역할태도의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경림 (2000). 체험연구. 현문사.
- 신옥주 (2011). 독일의 단독양육모를 위한 법적·실무적 장치에 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2(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 연구소, 171-208.
- 신현림 (2005). 신현림의 싱글맘 스토리. Human & Books.
- 양진향 (2001). 한국여성의 음식양생에 대한 체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한연 (2009). 싱글맘의 심리적 지원체계로서 자조모임. 한국한부모가정학, 2(1), 39-56.
- 오진국의 디지털아트 (2012). <http://blog.naver.com>.
- 윤성은 (2008). 이혼여성의 자존감 회복과정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가원·권오돈·임창순 (1987). 동아한한대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이근호 (2011). 존재의 교육과정 탐구: 현상학적 접근의 교육과정적 의미. 한국교육인류학회.
- 이나경 (2011). 여성한부모 가족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치료적 음악만들기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인 (2003). 현상학과 해석학의 철학적 이해. 2003년 하계 질적 연구워크샵 자료.
- 이재황 (2008). 한자의 재발견. 서울: 웅진씽크빅.
- 장혜경 (2003).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실태와 지원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조홍식 외 역 (2012).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최대제 (2010). 배우자 사별을 위한 상호지지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선·류진아·박희정 (2007). 한 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3), 75-95.
- 최영아 (2013). 싱글맘의 평생학습적 요구와 정책.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1). 2011년 인구동향. <http://www.kostat.go.kr>.
- 황선희 (2010). 사별에 따른 지속된 비애증상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숙 (2001). 한부모가정에 대한 반편견 유아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숙 (2005).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정은 (2002). 여성 한 부모의 힘 기르기와 지지 집단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ffi, T. D. & Schrodt, P. (2003). Uncertainty and Avoidance of the State of One's Family in Stepfamilies, Postdivorce Single-Parent Families, and First-Marriage Familie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9(4), 516-532.
- Kleist, David. M. (1999). Single-Parent Families: A Difference That Makes a Difference?.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 Couples and Family*, 7(4), 373-378.
- Tsushima, T. & Gecas, V. (2001). Role and Socialization in Single-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22, 267-288.
- van Manen, M. (1997). From Meaning to Method. *Qualitative Health Research*, 7(3), 345-369.

1차원고접수 : 2013. 5. 1.

심사통과접수 : 2013. 12. 13.

최종원고접수 : 2013. 12. 27.

## Parenting Experience of Single Mother Families

Lee Jeong-bin

Jeongbin Counseling Institute

This study is intended to understand better what the participants experience through the parenting role and disclose what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 The present study adopted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the qualitative research. In particular, this paper chose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8 persons, who have experienced parenting as a mother of single-parent families. Data was collected by using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derived twenty-six sub-themes and 6 main themes which were combined by those sub-themes.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a mother of single-parent families are as followings: <coming that my life is broken into pieces>, <fear and impatience of to be asked on its own way>, <reconstructing that way of living as a single-mother>, <becoming estranged relations and becoming relations of defensive activities against possible disadvantage>, <fagging of to be asked on its own way>, <becoming good life as single-parent>. Parenting experiences of participants were disclosed to the structure that participants should carry out on its own way in the change of identity, relation and role.

*Key words* : single parent family, single-mother, parentage, phenomenology, qualitative research